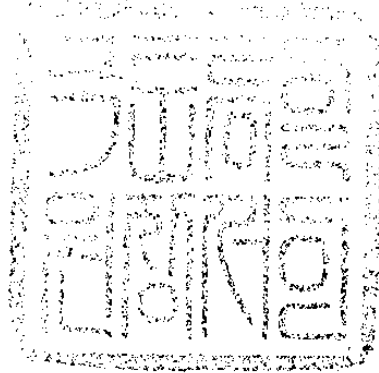


3615
24P.11

北傀의 對中立國 外交政策 및 그 對備策

1975. 5.



북한이동생외교
북한중앙국외교
북한외교장관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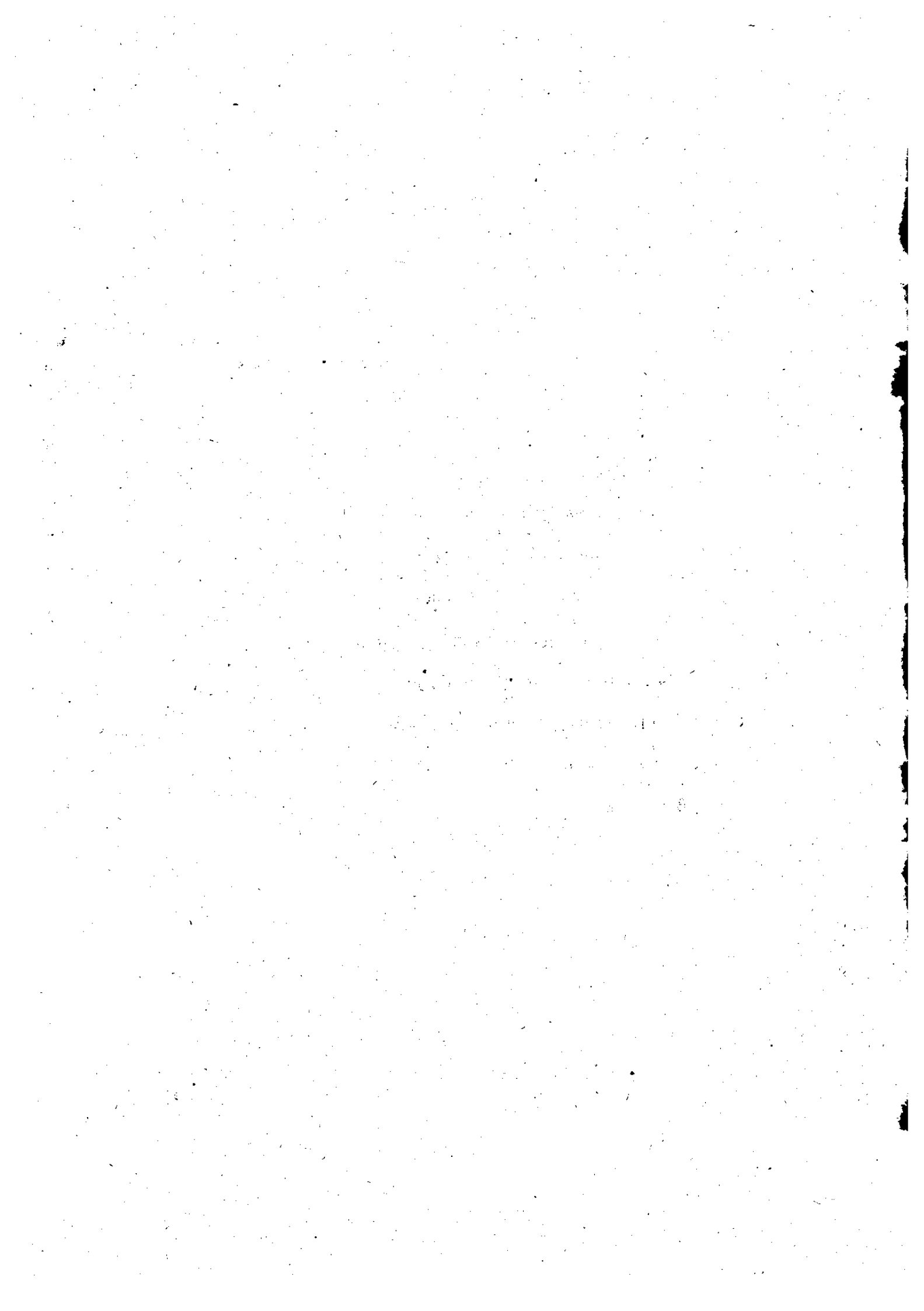
1975. 5.

統一問題研究所

韓 致 煥

目 次

第1章 序 論	3
1. 外交政策의 戰略	3
第2章 本 論	5
1. 北傀의 外交政策의 變遷의 戰術的 轉換	5
2. 北傀의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	8
3. 北傀의 外交現況 (政治, 經濟, 軍事外交)	12
(1) 政治外交現況 (外交關係 樹立現況)	12
(2) 經濟外交 現況 (對外貿易現況)	18
(3) 軍事外交 現況 (軍事條約 現況)	26
(4) 北傀外交의 75年 重點方向	31
4. 北傀의 對中立圈 外交政策 分析	35
(1) 對中立圈 外交政策 分析	35
(2) 對亞·阿·中南美 外交政策 分析	38
第3章 結 論	41



第 1 章 序 論

1. 外交政策과 戰略

外交政策이란 國際政治狀況下에서의 一主權國家가 그 國家目標 내지 國家利益을 極大化하는 行爲計劃이다. 政策科學이란 立場에서 無意志의 未來의 狀態 (what will be) 와 當爲的인 未來의 狀態 (what ought to be) 間에 存在하는 間격을 最小化할 수 있도록 現實與件에 變化를 주는 作業을 말한다. 따라서 政策의 構成要素로서 考慮할 수 있는 것은 政策目標, 政策環境과 政策手段이다. 政策을 段階的으로 把握할 때 政策目標을 具體化하는 段階가 政策戰略 (Policy Strategy) 이다. 그러므로 政策戰略은 政策의 한 下位體系로 理解할 수 있다. 政策戰略은 競爭相對方을 意識하고, 어떤 行爲計劃이 戰略目標 達成에 最善의 것인가를 考察하여야 할 것이다. 最近의 越南의 붕괴를 政策과 政策戰略의 次元에서 分析한다면 越盟의 政策, 政策戰略과 美國 등 強大國의 對東南亞 政策, 政策戰略으로 構成되는 國際政治環境과 自國內의 國內政治環境을 바로 認識 못한 「티우」政府가 効率的인 政策, 政策戰略을 作成하지 못한 것에서 分析評價할 수 있겠다. 우리도 同一한 政策的 愚를

범하지 않으려면 亞·阿의 77구롭과 非同盟 第三勢力圈 諸國의 各各의 國內政治狀況과 同地域에 對한 強大國 등의 外交政策을 주도 면밀히 分析檢討하고 아울러 北傀의 對中立諸國에의 政策戰略을 감안한 諸主要變數의 具體的 評價分析을 거쳐서 韓國의 對備的 中立國 外交政策을 形成實踐化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論考에서는 中立國에 對한 北傀의 政策狀況과 強大國의 國際的 力關係를 考慮한 후 韓國의 對中立國外交政策方向을 提示하기로 한다.

第二章 本 論

1. 北傀 外交政策의 變遷과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

(1) 그동안 北韓外交의 基軸을 이뤘은 对中·蘇外交의 偏向程度에 따라 外交政策의 變遷過程을 一瞥하면, 大體로 5段階로 区分해 볼 수 있다. 第1段階는 48年 政權樹立時부터 55년까지의 對蘇一辺 倒接近期, 第2段階는 56년부터 61년까지의 多元的 對外接觸期, 第3段階는 62년부터 64년까지의 對中共接近期, 第4段階는 65년부터 68년까지의 對蘇關係改善 및 對中共關係 疎遠期, 그리고 「第5段階는 69년부터 現在까지의 对中·蘇 同時的 接近 및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期이다」

政權樹立 후부터 50年代에 걸쳐 對共產圈外交에 莊力해온 北韓은 60年代에 접어들어 中·蘇間 對立의 激化, 亞·阿諸國의 國際舞台에의 大挙進出과 게다가 60年 第15次 UN總會에서의 南北韓 同時招請問題에 대한 最初의 拳論등을 契機로 하여 外交活動의 積極的인 展開가 要請됨에 따라 이른바 反帝·反植民 民族解放의 旗幟를 내세우면서 亞·阿·中南美諸國에 대한 浸透外交를 本格化하여 多元的 對外接觸에 腐心하였다. 그리하여 中·蘇間 對立의 渦中

에서 66年 8月 所謂 「自主路線」을 宣言한 北韓은 對中·蘇 關係에 있어 中立을 維持함과 同時에 中立諸國은 勿論 自由陣營에 까지 侵透努力을 傾注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共產圈의 多元化, 美·中共의 和解 및 關係改善, 美·蘇의 平和共存體制化 및 協調體制構策, 그리고 日·中共의 關係正常化등 緊張緩和와 勢力關係의 構造的 改編이라는 國際情勢의 흐름에 맞춰 自主와 實利에 立脚한 「對共產圈外交」, 「對中立圈外交」, 「對西方圈外交」를 同時적으로 推進해 나가는 廣範圍한 多邊外交를 指向하고 있다.

(2) 그래서 北韓은 70年 11月 勞動黨 才五次大會에서 「國際情勢는 싸우는 人民에게 有利하게 展開되고 있다」고 評價한데 이어 71年 11月 15日 勞動黨 才5期 3次 全員會議에서 「國際情勢에서 提起된 몇가지 問題」에 대해 論議한 후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에 관하여 決定하였다. 여기서 北韓은 急變하는 國際情勢를 分析하고 그에 對處하기 위해 外交政策의 戰術的 轉換을 기함으로써 自主·實利 柔軟外交路線을 追求함과 同時에 平和攻勢를 積極化하기로 하였다. 特히 同 會議는 71年 7月 Nixon 美大統領의 中共訪問 決定이 發表된 후에 開催된 會議인만큼 北韓은

은 앞으로 展開될 國際情勢에 대해 公式的으로 論議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當面한 諸問題의 戰術的 轉換」이라는 內容을 決定하고,
① 韓國의 統一問題에 있어서는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하며,
② 對日關係는 正常化를 이룩함으로써 韓·日條約이 自動廢棄되게
하며, ③ 對美關係에 있어서는 우선 韓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키
위해 暫定的으로 過去의 態度를 약간 柔軟化하기로 政策轉換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契機로 北韓은 日本에 대해서는 關係正常化
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웠던 韓·日條約의 廢棄를 問題삼지 않겠다고
하면서 對日接近을 적극 推進키로 하였으며, 美國에 대해서는 駐韓
美軍의 撤収 前이라도 關係改善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으로 말미암은 北韓의 對外姿勢
의 變化는 그 후 對外關係의 展開形態에 重大한 變化를 일으켜
왔다. 近者에 北韓의 「앞으로 南北韓에 대해 다같이 公平한 政
策을 適用하려는 모든 資本主義國家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用意가
있다」는 闡明도 結局 그러한 對外政策의 戰術的 轉換에 따른
對西方國家 門戶開放政策을 펴나가겠다는 것임은 勿論 實利外交로써
새로운 國際的 狀況에 對應코자 하는 것임을 뜻한다.

2. 北傀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

北韓의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를 보면, 먼저 旧憲法 37条에는 对外政策에 관한 基本原則의 樹立은 「最高人民會議」의 權限에 속한다(2項)고 規定돼 있었으며 49条에는 「最高人民會議」常任委員會가 外交分野에서 担当할 任務를 明示하고 있었는데 그 內用은 ① 外國과의 條約의 批准 및 廢棄(8項), ② 外國에 駐在하는 大使와 公使의 任命 및 召喚(9項), ③外國使節의 信任狀 및 召喚狀의 接受(10項)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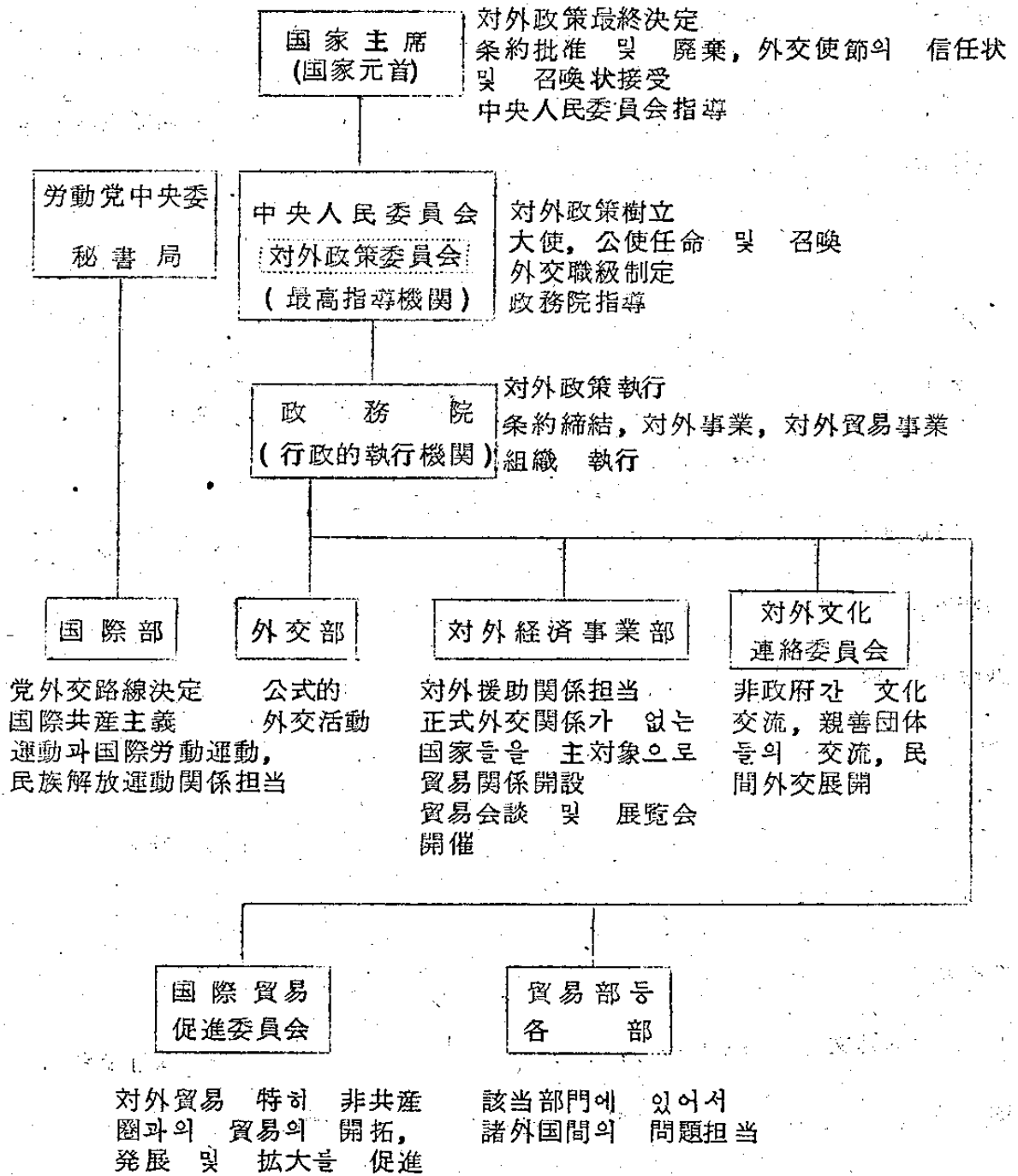
그러나 新憲法에서는 이러한 權限은 新設된 憲法機關인 「國家主席」이나 「中央人民委員會」에 속하는 것으로 規定돼 있다. 즉 위의 ①과 ③의 權限은 「國家主席」에(96条와 97条), ②의 權限은 「中央人民委員會」에 속한다.(103条8項)고 規定하고 있다

그런데 旧憲法에서는 內閣의 首相은 다만 「政府의 首席」으로만 表示돼 있어(59条1項) 國家元首가 누구인가라는 規定이 없었기 때문에 象徴적이긴 하나 蘇聯의 경우처럼 外國使節의 信任狀을 接受하는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會 議長」(崔庸健)이 慣例적으로 國家元首格이었지만, 新憲法에서는 北韓의 『主席은 國家의 首班이며 國家主權을 代表한다』(89条)고 하여 「國家主席」(金日成)이 國

家元首임을 明文化하였다. 때문에 위의 ①과 ③과 같은 權限이 「國家主席」에 賦与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國家主席」은 名実相符한 外交政策의 最高決定機關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对外政策의 基本原則을 樹立하는 것은 旧憲法에서와 같이 「最高人民會議」의 權限에 속하나(76條2項), 对外政策을 實際로 樹立하는 것은 「中央人民委員會」의 權限에 속한다(103條1項). 그래서 「中央人民委員會」는 外交職級을 制定하는 權限도 갖는다. (同10項). 이 「中央人民委員會」에는 对内政策, 对外政策, 國防, 司法安全등 部門別 4個의 委員會가 있는데, 外交部門은 이중 「对外政策委員會」가 맡는다. 한편 「政務院」(內閣)은 对外政策執行機關으로서 条約締結權과 对外事業權을 가지며(109條7項), 对外貿易事業을 組織·執行한다(同5項). 「政務院」의 外交執行機關인 「外交部」는 公式的인 外交活動을 하며, 이와는 別途로 經濟的인 國際協力關係나 非政治的인 民間外交등의 对外活動은 「对外經濟事業部」, 「对外文化連絡委員會」, 「貿易部」, 「國際貿易促進委員會」등의 機關이 遂行하고 있다. 또한 党内에 있는 外交關係機關으로서는 中央委 秘書局 傘下에 「國際部」가 있으며, 이 機構는 独自の으로 혹은 政務院의 对外機關들의 機能을 調整하면서 政策樹立에 関与한다. 다음에 北韓의 外交体系와 「外交部」機構를 보면 <表1~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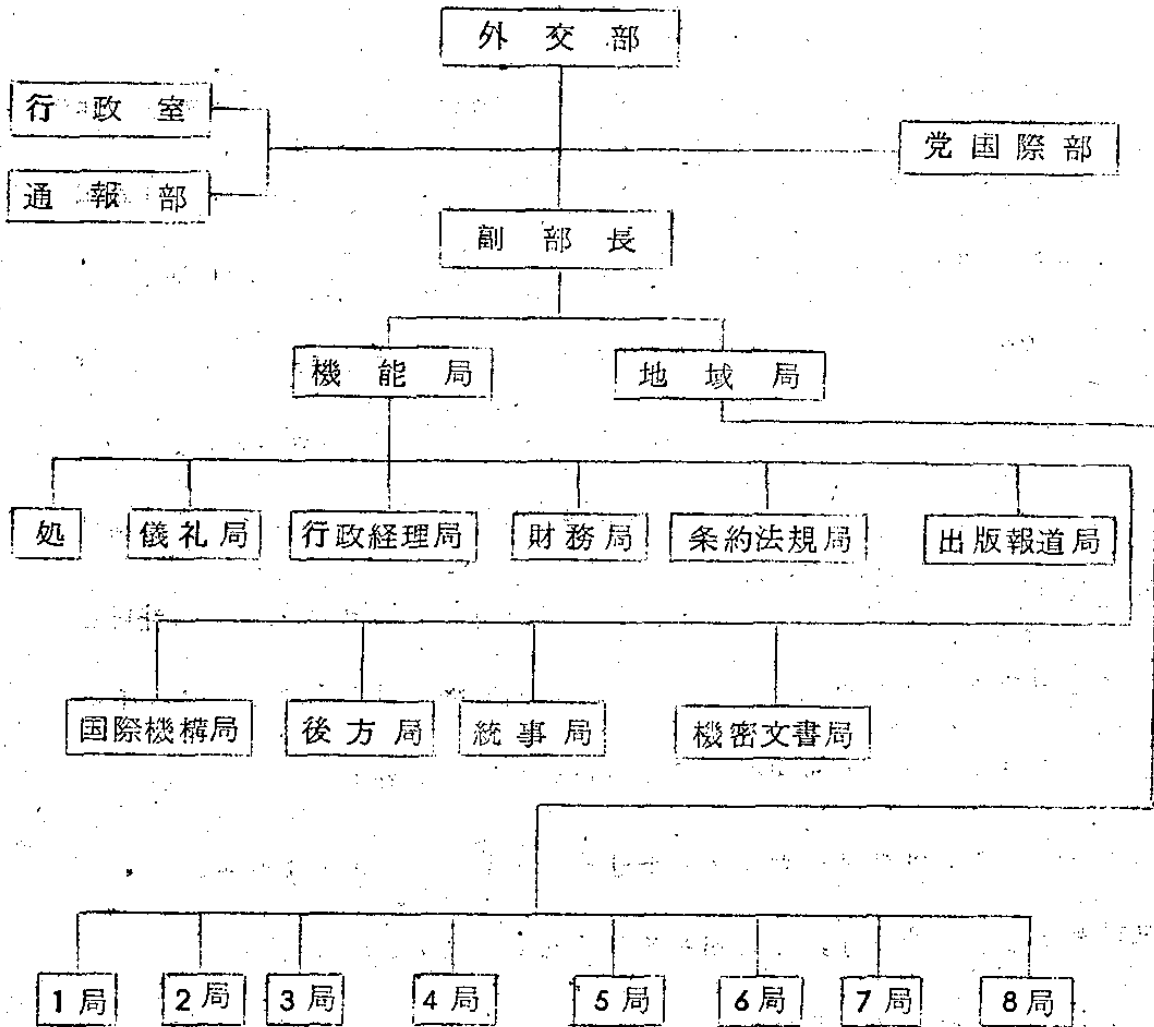
<表-1> <北韓의 外交体系>



資料：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安保統一問題 基本資料集」(北韓篇)，1972, p.531을 参考로 하여 作成한 것임.

<表 - 2>

<北韓의 外交部機構>



蘇聯 알바니아 中共 캄보디아 中東諸国 아프리카 西歐 및 統韓關係
 체코 불가리아 蒙古 스리랑카 諸国 南美
 東 獨 항가리 越 盟 印 度
 폴란드 루마니아 라오스 싱가포르

資料：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p.38.

3. 北傀의 外交現況(政治, 經濟, 軍事外交)

(1) 政治外交現況(外交關係樹立現況)

74年5月現在 北韓이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國家는 共產圈 13個國, 中立圈(西方圈包含) 57個國 都合 70個國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斷交狀態에 있는 「케냐」, 「가나」, 「차드」, 中共「아프리카」, 「스리랑카」, 「크메르」, 「칠레」등 7個國을 除外한 63個國과 正式으로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이들 國家중 現在 南北韓의 共同修交國을 보면, <亞州에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印度·「방글라데쉬」·「이란」·「아프카니스탄」·「말디브」·「네팔」·「라오스」, <阿州에서> 「우간다」·「카메룬」·「다호메」·「세네갈」·「리베리아」·「감비아」·「자이레」·「말라가시」·「시에라레온」·「루안다」·「토고」·「오토볼타」·「모리셔스」·「가봉」, <歐州에서>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랜드」·「핀란드」·「말타」, <美州에서> 「아르헨티나」·「코스타리카」·「가이아나」등 모두 32個國이나 된다. 이들 修交 競合國중 「핀란드」·「인도네시아」·印度·「방글라데쉬」·「아프카니스탄」·「네팔」·「라오스」를 除外한 25個國은 당초 모두 韓國하고만 修交했던 國家였으나 70年代에 와서 北韓과 修交한 나라들이

다. 北韓은 多邊外交를 積極化하기 始作한 70年代에 와서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國家는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려 36 個國이나 되며, 73年 한해 동안의 修交國만도 16 個國이나 된다. 그리고 北韓의 常駐大使館 設置現況을 보면 亞洲에 8 個國, 阿洲에 16 個國, 中東에 6 個國, 歐洲에 13 個國, 美洲에 2 個國 都合 45 個國이 된다.

한편 北韓은 「버마」, 「싱가포르」 2 個國과 總領事關係를 맺고 있는데, 韓國도 이들 國家에 總領事館을 設置하고 있어 서로 競爭을 이루고 있다. 또한 北韓은 「오스트리아」, 「레바논」, 「쿠웨이트」, 「스위스」에 通商代表部를, 仏蘭西에 民間通商事務所를 設置하고 있으며 그밖에 「뉴욕」에 UN代表部를 「제네바」에 UN 및 國際機構代表部를 設置하고 있다. 韓國도 「레바논」, 「쿠웨이트」에 通商代表部를, 그리고 「뉴욕」에 UN代表部, 「제네바」에 UN 및 國際機構代表部를 設置하고 있어 역시 北韓과 競爭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은 實際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한 63 個國에다 總領事館 設置 2 個國과 通商代表部 設置 5 個國을 합하면 모두 70 個國과 外交的 關係를 맺고 있는 셈이 된다. 이것은

<表 - 5 >에 나타난 바와 같이 現在 韓國이 外交的 關係를 맺고 있는 101 個國(大使關係 94 個國, 總領事關係 4 個國, 通商代表部 3 個國)에 比하면 劣勢에 있는 편이지만 大使가 常駐하고 있는 公館으로 比較한다면 韓國이 57 個國, 北韓이 45 個國으로서 큰 差異가 없는 셈이다. 다음에 北韓의 大使級 外交關係樹立 現況과 總領事館 및 通商代表部 設置現況 그리고 地域別 南北韓 外交關係 現況 比較를 보면 <表 3~5 >와 같다.

<表-3> <北韓의 大使級 外交關係樹立 現況> 74年 5月 現在
 △表는 70年代 修交 國

共 産 圈			
國 名	修 交 日	國 名	修 交 日
蘇 聯 (常)	48.10.12	알 바 니 아 (常)	49. 5.17
蒙 古 (〃)	48.10.15	中 共 (〃)	49.10. 6
폴 란 드 (〃)	48.10.16	東 独 (〃)	49.11. 7
체 코 (〃)	48.10.21	越 南 (〃)	50. 1.31
루 마 니 아 (〃)	48.11. 3	쿠 바 (〃)	60 8.29
항 가 리 (〃)	48.11.11	△ 유 고 (〃)	70. 9. 2
불 가 리 아 (〃)	48.11.29		
中 立 圈			
國 名	修 交 日	國 名	修 交 日
말 리 (常)	60.10.31	△ 말 디 브	70. 6.14
가 니 아 (〃)	61. 7.23	△ 스리 랑 카 (斷交)	70. 8.24
예 멘 (〃)	63. 3. 9	△ 시에 라 레 온	71.10.14
알 제 리 아 (〃)	63. 5. 1	△ 말 타	71.12.20
아 람 共 和 國 (〃)	63. 8.24	△ 카 메 룬 (常)	72. 3. 3
케 냐 (斷交)	64. 2	△ 루 안 다	72. 4.22
인 도 네 시 아 (常)	64. 4.16	△ 칠 레 (斷交)	72. 6. 1
모 리 타 니 아 (〃)	64. 1.11	△ 우 간 다 (復交) (常)	72. 8. 2
크 메 르 (〃)	64.12.20	△ 세 네 갈 (常)	72. 9. 8

국명	修交日	국명	修交日
콩고 (보) (常)	64.12.20	△오트볼타	72.10
가나 (断交)	64.12.28	△파키스탄 (常)	72.11.9
탄자니아 (常)	65.1.14	△말라가시	72.11.16
시리아 (非)	66.7.25	△자이레 (常)	72.12.19
부룬디 (非)	67.3.11	△다호메 (非)	73.2.5
소말리아 (非)	67.4.12	△토고 (非)	73.2.6
이락 (非)	68.1.30	△감비아	73.3.2
南部예멘 (非)	68.2.7	△모리셔스	73.3.20
적도기니아 (非)	69.1.30	△스웨덴 (常)	73.4.7
차드 (断交)	69.5.8	△이란 (非)	73.4.15
수단 (常)	69.6.21	△아르헨티나 (非)	73.6.1
中央아프리카 (断交)	69.9.5	△필리핀 (非)	73.6.1
잠비아 (常)	69.9.22	△노르웨이 (非)	73.6.22
		△말레이시아 (非)	73.6.30
		△덴마크 (非)	73.7.20
		△아이슬란드	73.7.27
		△인도 (常)	73.12.10
		△방글라데쉬	73.12.16
		△리베리아	73.12.20
		△아프카니스탄	73.12.27
		△가봉	74.1.29
		△리비아	74.1.30
		△코스타리카	74.2.10
		△네팔	74.5.15
		△가이아나	74.5.18
		△라오스	74.5.31

※ (常)은 常駐大使館을 表示
합(45個國)

△表의 70年代 修交國은 모두
34個國(断交狀態에 있는 「스
리랑카」, 「칠레」는 除外)

<表-4> <北韓의 總領事館 및 通商代部 設置現況>

(74年5月 現在)

總領事館設置國		通商代表部設置國	
(國名)	(開設日)	(國名)	(開設日)
버마	61.9.	프랑스	67.4.13
싱가포르	69.11.28	레바논	68.2.14
		쿠웨이트	68.3.20
		스위스	69.9.15
		오스트리아	69.12.4

※ 프랑스는 民間通商事務所임

<表-5> <地域別 南北韓外交關係 比較>

(74年5月現在)

地域	区分 南北	大使級外交關係		總領事館設置		通商代表部設置		合計	
		南	北	南	北	南	北	南	北
亞	洲	19 (11)	12 (8)	3	2	1		23	14
美	洲	23 (13)	4 (2)					23	4
歐	洲	19 (15)	15 (13)				3	19	18
中	東	9 (5)	8 (6)	1		2	2	12	10
阿	洲	24 (13)	24 (16)					24	24
計		94 (57)	63 (45)	4	2	3	5	101	70

※ 大使級 外交關係에 있어서의 ()의 數字는 常駐大使館을 表示함

(2) 經濟外交 現況 (對外貿易現況)

오늘날 北韓은 現實的이고 實利追求的인 立場에서 積極的인 經濟外交를 展開하고 있는데, 이는 「工業基盤의 近代化」를 標榜한 新 6 個年計劃을 効率的으로 遂行하는데 必要的인 資本과 技術導入을 위해 海外貿易 門戶擴張政策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表-6> 에서 보듯이 近者에 北韓의 對外貿易이 增加하고 있는 것도 6 個年計劃에 있어 設備近代化나 省力的인 技術의 導入 그리고 自己完決的인 工業의 發展을 위해 「프랜트」나 機械資材의 對外依存度を 크게 높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北韓은 67年 12月에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才 4期 1次會議에서 採択된 所謂 金日成의 「10大政綱」에 나타난 對外貿易에 관한 基本方針에 따라 對外貿易을 推進해 왔다.

同 政綱 8項은 對外貿易의 基本政策으로서 ① 對外貿易을 發展시키는데 있어서 共產圈 市場은 1次的인 對象으로 하며, ② 亞·阿新生獨立國과 完全한 互惠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經濟的 關係發展에 努力하며, ③ 北韓의 自主權을 尊重하고 北韓과의 經濟的 連繫를 가지기를 希望하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모든 國家와의 貿易 및 通商交流關係를 發展시킨다는 것을 들었다.

이러한 基本政策에 따라 這間 北韓은 對共產圈交易은 勿論 中立國과 西方國家를 對象으로 하는 多邊的 經濟外交를 展開해 왔다. 그리하여 各種 施設材 및 最新技術導入을 위해 北韓은 日本과 西歐自由陣營 諸國과의 交易量을 增加시키고 있는 實情이다 (表-7 參照). 특히 이러한 北韓의 經濟外交는 6個年計劃에 있어 年平均 工業成長率 14%의 目標 (表-10 參照) 達成을 위해서는 勿論 6個年計劃을 遂行하는데 따른 基本方針으로 「3大技術革命」을 推進하기 위하여 先進技術과 資本의 導入이 必須條件으로 指摘되고 있다는 面에서 더한층 重要性을 지니고 있다. 실상 71年 金日成의 新年辭를 통해 6個年計劃의 主要指標 (表-10. 參照) 를 2年 앞당겨 達成하겠다고 豪言했던 北韓이, 73年9月 政權樹立 25周年 紀念式에서의 政務院 總理 金一의 報告를 통해, 이를 75年末까지 完遂하겠다고 하여, 計劃目標을 1年 後退시켰다는 것을, 보더라도 北韓의 經濟外交의 緊要性の 一端을 엿볼수 있다. 그러므로 近者에 北韓을, 對內經濟建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先進資本主義國家로부터 施設材 및 技術導入에 대한 商談을 積極적으로 推進해왔을 뿐만 아니라 對中·蘇 實利經濟外交의 強化와 東歐圈諸國과의 多邊貿易 促求 그리고 OECD加盟國으로 부터의 借款導入, 交渉등을 벌여 왔

던 것이다. 다음에 北韓의 對外貿易의 推進・障營別 貿易規模・
貿易依存度・受援現況 그리고 6個年計劃의 主要指標를 보면 <表
6~10>과 같다.

<表-6>(a) <北韓의 對外貿易의 推移>

(單位: 1,000 U.S.\$)

年 度	輸 出 額	輸 入 額	合 計	前 年 對 比 輸 出 增 加 (%)	前 年 對 比 輸 入 增 加 (%)	前 年 對 比 合 計 增 加 (%)	合 計 指 數 (1961=100)
1961	143,988.0	152,918.5	296,906.5	-	-	-	100
1962	167,245.4	164,804.4	332,049.8	16.2	7.8	11.9	112.1
1963	178,274.7	172,206.3	350,481.0	6.7	4.5	5.6	118.0
1964	194,729.3	189,462.3	384,191.6	9.2	16.0	9.6	129.4
1965	193,709.5	204,447.3	398,156.8	-0.5	7.9	3.6	134.1
1966	207,720.0	206,300.1	414,020.1	7.2	0.9	3.9	139.4
1967	222,743.7	210,981.0	433,724.7	7.2	2.2	4.8	146.0
1968	252,449.5	300,510.8	552,960.3	13.3	42.4	25.2	186.2
1969	299,846.6	385,109.0	684,955.6	18.8	24.8	23.9	230.7
1970	330,161.4	379,774.8	709,936.2	10.1	-1.3	3.6	239.4
1971	394,000.0	462,300.0	859,300.0	18.5	21.7	21.4	289.4
1972	475,200.0	562,400.0	1,037,600.0	20.0	21.7	20.7	349.6

<参考>(b)

<韓國의 對外貿易의 推移>

(單位：1,000U.S.\$)

年 度	輸 出 額	輸 入 額	合 計	前年对比 輸出增加 (%)	前年对比 輸入增加 (%)	前年对比 合計增加 (%)	合計指數 (1961=100)
1961	40,901	316,142	375,043	-	-	-	100
1962	56,702	421,782	478,484	38.6	33.4	34.0	134.0
1963	84,368	560,273	644,641	48.7	32.8	34.7	180.5
1964	120,851	404,351	525,202	43.2	-27.2	-18.5	147.1
1965	180,450	463,442	643,892	49.2	14.1	22.6	180.4
1966	255,751	716,441	972,192	41.7	54.6	51.0	272.3
1967	356,592	996,246	1,354,838	40.2	39.1	39.4	379.5
1968	500,408	1,468,166	1,968,574	39.6	51.9	45.3	551.4
1969	702,811	1,823,611	2,526,422	61.6	24.2	28.3	707.6
1970	1,003,808	1,983,973	2,987,781	42.8	10.0	18.3	836.8
1971	1,352,000	2,212,000	3,564,000	33.7	11.5	18.9	998.2
1972	1,682,000	2,428,000	4,110,000	24.4	9.8	15.3	1,151.2

(a . b) 資料：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北韓經濟」, 1973, P.139;
 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 「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 1972, P.495; 國際問題研究所,
 「北韓現況」, 1973, P.156 등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임 .

<表-7> <北韓對陣營別貿易規模>

陣營 區分	61		65		70	
	額數	比率(%)	額數	比率(%)	額數	比率(%)
共產圈	270,057.0	90.9	340,718.3	85.6	581,849.6	82.0
中立圈	4,293.1	1.5	2,891.7	0.7	21,313.0	3.0
自由圈	22,556.4	7.6	54,546.8	13.7	106,773.6	15.0
合計	296,906.5	100	398,156.8	100	709,936.2	100

資料：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P.157。

<表-8> <南北韓의 貿易依存度 比較>

区 分 年 度	韓 國			北 韓		
	GNP (단위:萬弗)	貿易規模 (단위:千弗)	貿易依存度 (%)	GNP (단위:萬弗)	貿易規模 (단위:千弗)	貿易依存度 (%)
1961	241,100	357,043	14.8	170,430	296,906	17.4
1962	251,100	478,484	19.1	181,579	332,049	12.8
1963	273,000	644,641	23.6	194,940	350,481	17.9
1964	296,200	525,200	17.7	205,058	384,191	18.7
1965	324,600	643,892	19.8	224,510	398,156	17.7
1966	380,400	972,192	25.6	254,130	414,020	16.9
1967	427,100	1,354,838	31.7	256,400	433,724	16.9
1968	501,800	1,968,574	39.2	269,220	552,960	20.5
1969	609,100	2,526,422	41.5	295,200	684,955	23.2
1970	699,300	2,987,781	42.7	300,000	709,936	23.7
1971	802,000	3,564,000	44.4	305,000	859,300	28.1
1972	977,000	4,110,000	42.1	364,000	1,037,600	28.5

資料: 中央日報社 東西問題研究所, 「北韓經濟」, 1973. PP.139~

140; 國際問題研究所, 「北韓現況」, 1973. PP.98.156을

綜合하여 作成한 것임

〈表-9〉 〈北韓의 受援現況〉

(1949~'70 : 單位 萬弗)

國家	區分	無 償	借 款	合 計
蘇	聯	73,125	23,168	96,293
中	共	45,600	15,750	61,350
체	코	20,034		20,034
東	獨	13,635		13,635
폴	란 드	9,000		9,000
루	마 니 아	2,250		2,250
불	가 리 아	1,250		1,250
항	가 리	392		392
合	計	165,286 (80.9%)	38,918 (19.1%)	204,204 (100%)

資料：東亞日報社 安保統一問題調查研究所，「安保統一問題基本資料集」(北韓篇)，1972.PP.487-486；國際問題研究所，「北韓現況」，1973.P.168.

<表 - 10 > (a) <北韓의 6 個年計劃 目標의 總体的 指標 >

(7 個年計劃의
目標의 実績 포함)

	7 個年計劃目標	7 個年計劃実績	6 個年計劃目標
國民所得	2.7 倍	-	1.8 倍
工業總生產額	3.2 倍	3.3 倍	2.2 倍
工業年平均成長率	당초 18 % 延長 12.4 %	12.8 倍	14 %
生産手段生産	4.2 倍	3.7 倍	2.3 倍
消費財生産	3.1 倍	2.8 倍	2.0 倍

資料：ユリア評論，1971，玉城素，『重大轉機に立つ北朝鮮』，

p.14 (中央日報社，東亞問題研究所，「北韓經濟」，1973.

p.61에서 再引用)

< 參考 > (b)

< 76年度 南北韓의 總量指標比較 >

	單位	韓國	北韓
G . N . P	百萬弗	16,500	※ 5,400
1人當 GNP	弗	482	※ 334
經濟成長率	(年) %	8.7	※ 10.3
工業成長率	(年) %	15.7	※ 14
農業成長率	(年) %	4.4	※ 3.4

(※表는 推定임)

資料：國際問題研究所, 「北韓現況」, 1973.p.97.

(3) 軍事外交現況 (軍事條約現況)

北韓의 軍事外交는 한마디로 對中·蘇 安保外交에 重點을 두어 왔다. 그것은 北韓의 安保가 蘇聯 및 中共과의 軍事同盟條約에 依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은 所謂 「南朝鮮革命」遂行에 있어 國際的 支援體系를 主要條件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中共 및 蘇聯을 그 支援體系의 中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北韓은 61年 韓國에서 5.16軍事革命이 일

어나 反共政策이 強化되자 自体의 安保体制을 再定立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判断한 나머지 韓·美防衛條約에 対応하기 위한 對蘇 및 對中共軍事條約을 締結하였다. 즉 同年 7月6日에 蘇聯과 所謂 「朝·蘇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고, 그 직후인 7月11日에는 中共과도 똑같은 軍事條約을 締結하였다. 이들 條約에서는 戰爭이 發生했을 경우 「遲滯없이 온갖 手段으로써」 (朝·蘇條約 1條), 「遲滯없이 모든 힘을 다하여」 (朝·中條約 2條) 軍事的 및 其他 援助를 提供한다는 內容으로 돼 있다. 有効期間에 대해서는 朝·蘇條約은 10年の 効力を 갖는 것으로 締約 一方이 期間滿了 1年前에 이 條約을 廢棄하는데 관한 希望을 表示하지 않는 한 다음 5年間 계속하여 効力を 가지며, 이런 前次에 의해 앞으로 有効期間이 延長된다고 하였고(6條), 朝·中條約은 條約을 修正 또는 廢棄하는데 관한 雙方間의 合意가 없는 以上 계속 効力を 갖는다고 하여(7條) 半永久的인 性格을 띄고 있다. 이들 軍事條約의 意義에 대해 北韓은 『帝國主義者들이 社會主義 戰取物을 侵害하려고 한다면 羞恥스러운 慘敗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斷乎히 警告하는데 있으며 두나라 人民들의 平和的 努力을 믿음직하게 保衛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北韓의 軍事外交는 ① 自体의 防衛体制을 確立하고, ② 나아가 共產陣營 一環 내지 陣地로서의 使命을 다하며, ③ 韓半島 全域을 共產化해야 한다는 所謂 「南朝鮮革命」의 追求를 그 目標로 하면서 對蘇 및 對中共外交에 置重하여 展開돼 왔다.

특히 69年 韓國의 安保는 日本의 安保에 緊要하다고 한 「닉슨-佐藤」共同聲明이 發表되자 安保에 不安을 느낀 北韓은 이에 對処하기 위한 對中・蘇共同紐帶를 다져 北方三角關係를 強化하는데 腐心하였다. 그리하여 70年 4月 蘇聯軍 總參謀長 「자하로프」와 中共首相 周恩來가 北韓을 訪問하여 對北韓支援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71년에는 軍事條約締結 10周年에 즈음하여 北韓을 訪問한 蘇聯 第1副首相 「마즈로프」를 團長으로 하는 代表團을 맞아 北韓은 朝・蘇條約 5年間 自動延長을 祝賀하는 大대의인 紀念行事를 가졌으며, 中共과도 高位代表團이 相互訪問하는 등 紀念行事를 가졌다.

특히 中共과는 同年 9月 6日 「對北韓無償軍事援助協定」을 締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北韓은 그동안 對中・蘇軍事條約 締結紀念行事와 그 以後의 軍事外交를 통해 蘇聯과 中共 雙方으로부터 軍事同盟에 의한 自体의 安保를 再確認하고 이른바 血盟關係

를 다져 놓는데 注力해 왔다. 北韓은 所謂 「自主路線」에 立脚하여 「國防에서의 自衛」를 一面으로 標榜하면서 他面으로 背後支援勢力으로서 中共과 蘇聯의 支援確約을 계속 다짐받아 왔다. 다음에 英國戰略問題研究所의 資料에 依拠한 北韓의 軍事力을 보면 <表 - 11 >과 같다.

<表 - 11 >

<南北韓의 軍事力比較> - (73年)

	韓 国	北 韓
人 口	3,266,500 名	15,000,000 名
兵 力	633,500 名	470,000 名
服 務 期 間	陸軍・海兵隊 2年9個月 海・空軍 3年	陸軍 3年 海・空軍 4年
GNP	93 億弗 (72年推定)	35 億弗 (72~73年推定)
国 防 費	1,848 億원 (73年) (476 百萬弗 : 400 원 = 1 弗) 72年7月, 388 원 = 1 弗 73.7)	1,282 百萬원 (73年) (620 百萬弗 : 2.05 원 = 1 弗)
陸 軍	560,000 名	408,000 名
海 軍	18,900 名 海兵隊 29,600 名	17,000 名
空 軍	25,000 名	45,000 名
予 備 兵 力	郷土予備軍 2,000,000 名	安全兵力 및 国境守備隊 50,000 名 勞農赤衛隊 1,450,000 名

資料：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73~1974." London, pp.53~54

(4) 北傀外交의 75年 重点方向

向後 1~2年間을 南北韓間에 1對1의 國際關係로 轉換시킬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는 北傀는 今年에도 對유엔外交, 第3世界浸透를 보다 強化해 나갈 것임은 勿論 이에 더하여 對自由圈浸透와 共産圈의 對韓接近沮止에 細心한 配慮와 活動을 展開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北傀로서는 75年 가을의 유엔 總會를 하나의 決戰으로 맞이하고자 할 公算이 크다.

그것은 ① 28次 유엔 總會에서의 「언키크」解體合意聲明以後, 昨年에 있는 3年만의 表決에서 비록 그들이 敗北하기는 했으나 다섯차례의 票對決結果 棄權이 32票를 上廻하고 共産側에 48對48을 記錄하므로써 南北韓 支持勢力은 固着化되었지만 浮動票는 늘어났다는 事實에 着眼, 앞으로 이들에 集中攻勢를 퍼므로써 駐韓유엔軍 問題를 해결해 보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또한 29次 유엔 總會戰略에서 西方側案이 勝利한 것은 我側의 強穩兩面作戰이라는 總會戰略과 유엔軍司 存統과 韓國問題 安保移管을 골자로 한 柔軟한 再修正案이 奏効한 것이라는 點을 勘案하여 北傀는 前보다 더욱 說得力있는 案을 提示하므로써 韓國問題를 体系的으로 理解못하는 第3國을 크게 현혹하여 成果를 얻

을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北傀의 29次 유엔總會 備忘錄이 國際社会에의 南北韓 共同進出과 不可侵條約締結을 實現하기 爲한 節次問題등을 浮刻시켰던 것을 보면 그들은 休戰協定効力存続에 同意하면 UNC 解体에 反對치 않는다는 韓國態度를 逆利用하는 合理的 印象의 案을 提示할 것이 豫見된다.

③ 昨年末 「포드」美國大統領의 極東巡訪을 期해 나돈 韓半島 周邊強大國의 南北韓交叉承認說을 비롯, 餘他地域의 紛爭이 심각할 수록 韓半島에서 對決만은 더욱 회피하려는데 따라 幕後接觸이 싹틀 가능성이 있어, 現狀固定化를 爲한 周邊의 움직임이 積極化하기 前에 이른바 民族內部問題를 民族自決主義에 立脚해 處理토록 해야 하겠다는 執念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作用할 것이다.

다음 第3世界外交의 強化는 今年度 北傀外交의 가장 큰 活動으로 나타날 것이다.

第3世界는 오늘날 유엔에서의 多數의 威力을 誇示하는 나라들이며 實際적으로 中東紛爭과 對西方資源紛爭등을 北傀로서는 크게 利用할 与件이 있는 反面에 이들에 對한 韓國의 同調는 매우 어려운 局面들이 많다는 점에서 더욱 눈독을 드리는 國家들이다.

北傀는 「世界 人口의 2/3 以上, 地球領土의 70% 以上이 되는 第3 世界의 形成은 帝國主義가 3 大陸에서 더는 安全한 後方도 지탱 絶對 가지지 못하는것」이라 보고 「帝國主義에 對하여 보다 強力한 經濟的制裁措置를 取하라」고 하면서 今年부터는 第3 世界와의 紐帶強化를 強調함에 있어 經濟的 紐帶의 緊密化마저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北傀는 西方과 共產國家를 비롯 이들 第3 世界 國家들에 對한 招請訪問外交를 強化함은 勿論 1968 年以後 現在까지 訪問受諾의 空手票만 띄던 諸國에 金日成이 直接 外遊라는 反對給付를 해야할 立場이기도 하다 더구나 6 個年計劃에 이은 新經濟計劃을 위해 中蘇등 共產國家의 援助를 求乞해야하고 막바지에 들어선 對 유엔 外交를 위해 中立諸國을 돌면서 一大 北傀몽을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特別한 理由가 없는限 金日成의 國際行脚이 있게 될것이 豫測된다. 今年度 北傀外交活動에서는 日本을 비롯한 對西方經濟外交의 強化에 더욱 拍車를 加하며 유럽과 中南美에의 浸透를 積極化할 것이지만 對共產圈 外交에서도 特異한 局面을 보일 것으로 展望된다.

그들로서는 UNC 解体를 둘러싼 安保理移管問題를 비롯 東南亞의

現狀 定着을 위한 美·蘇, 美·中共 등의 交涉을 防止 乃至는 自己들에게 有利한 局面으로 이끌도록 事前布石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北傀는 「社會主義 國家들이 南朝鮮 政權을 承認한다면 곧 美軍의 強占을 承認하는 것과 같으며 朝鮮에 對한 美軍의 殖民地 隸屬化政策을 支持하는 것이나 다름 없으며 社會主義國家들이 저들을 認定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永遠히 實現될 수 없는 妄想」

(74.1.13 .노동신문) 이라고 뇌까렸다. 또한 그들은 「오직 美國이 南조선에서 侵略軍隊를 撤収하고 強占을 끝장내며 우리에게 對한 侵略策動을 그만 두는 條件下에서만 美國과의 關係는 改善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條件에서는 關係를 改善할 用意도 없고 또 그렇게 할 必要도 없다」고 主張했다.

即 對美關係 改善이 駐韓美軍撤収에 있다는 것과 南北韓 交叉承認問題에 있어 共產國家들은 美軍駐屯下의 韓國을 承認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을 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北傀의 이같은 強硬態度는 交叉承認 그 自体를 反對한다기 보다는 美軍駐屯이 象徴的 存在로 될 때까지 蘇·中共의 韓國承認은 不可하다는 對中·蘇警告 聲明의 意味가 크며 나아가서는 國

際的으로 南北韓의 力量關係가 1對1以上이 될때까지 韓半島問題에 對한 強大國間의 調整이나 介入을 強力히 反對한다는 原則을 提示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對中·蘇 安保外交에 있어서 유엔軍 아닌 韓美 防衛條約에 근거한 駐韓美軍의 存在를 놓고 大規模의 經濟·軍事援助를 確保하려는 積極活動과 함께 앞으로 共産圈의 對韓交流를 重要한 契機로 잡고 이들의 對韓承認을 적극 排除하는 방법을 構築해 나가려 할 것이다.

4. 北韓의 對中立圈 外交政策 分析

(1) 北韓의 對中立圈 外交政策

① 對中立圈政策

北韓이 對外政策의 基本路線중 主要한 하나의 側面은 亞·阿中南美諸國과 親善 및 協調關係를 增進하는 것이라함은 前述한 바와같다. 이는 Scalapino 教授가 指摘하듯이 非西方의 新興, 第3世界인 亞·阿·中南美의 情勢를 利用하고 帝國主義 特히 美國을 弱化시켜 드디어는 崩壞시킴으로써 世界革命을 前進시키려는데 그 目標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路線은 55年 4月 亞·阿非同

盟 29 個国이 參加한 所謂 「반동會議」에서 「平和 5 原則」이 發表된 것을 契機로 하여 北韓이 이것을 支持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즉 56年 4月 勞動黨 第3次大會에서 金日成은 報告演說을 통해 『반동會議는 植民主義를 反對하며 鞏固한 平和를 指向하는 數億萬 亞·阿人民들의 一致한 念願을 表明하였으며, 有名한 「平和 5 原則」에 立脚한 이 地域人民들의 團結을 뚜렷이 보여 주었고 帝國主義者들에게 커다란 打撃을 주었다』고 말하고 『相異한 社會制度를 가진 나라들의 平和的 共存에 대한 「레닌」的 堅持하여 우리와 좋은 關係를 維持하려는 모든 나라들과 友邦的 遮繫를 設定하기 위하여 努力할 것이다』라고 附言하여 最初로 對中立國政策을 闡明하였다.

그 후 61年 9月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金日成은 『우리黨과 政府는 社會制度가 相異한 國家들간에 平和共存의 原則에 立脚하여 亞·亞·中南美의 民族的 獨立國과 友好關係를 맺고 發展시키는 것을 對外政策의 重要한 一環으로 삼고 있다』고 하여 對中立國政策을 再次 밝혔다. 同 大會에서 金日成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內外情勢는 우리 革命에 有利하게 進展되고 있다」는 希望的 情勢判斷을 하면서 ① 共產諸國과는 團結強化 ② 中立諸國과는 親

善強化 ③ 帝國主義國家와는 鬭爭強化를 強調하고, 이러한 政策만이 勝利를 保障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北韓의 外交가 國際的 性格을 띠기 始作했던 것이다. 如斯한 北韓의 對中立國政策은 66年 10月 勞動黨 代表者會議에서도 거듭 闡明되었다.

이 當時 北韓은 強大國에 對해서는 修正主義를 限死코 反對하는 理念主義 外交原則을 適用했고, 亞·阿·中南美諸國에 對해서는 이른바 反帝·反植民 民族解放을 標榜하면서, 對中立國浸透 努力을 前例 없이 傾注하였다. 70年代에 들어서서는 多邊外交의 積極化와 함께 對中立國 外交關係를 大的으로 擴大, 發展시켜 왔다. 앞에서의 外交現況에서 보듯이 70年代에 와서 이룩한 對中立國 外交活動의 成果는 참으로 多大한 것이다.

다음에 北韓의 對中立國 外交戰略을 보면, ① 中立諸國과의 外交關係를 擴大함으로써 北韓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며, ② 反帝反植民主義 鬭爭을 통한 連帶性強化로 韓半島 共產化統一의 障礙要素인 美國의 影響力을 後退시키고 나아가서는 美國을 亞·阿地域에서 獨立시키며 ③ 中立諸國과 經濟·文化關係를 擴大·發展시킴으로써 同諸國內의 共產勢力 養成을 뒷받침하며, ④ 北韓의 統一案에 대한

広範한 支持를 獲得함과 同時에 UN에서의 支持努力을 確保하려는 것등을 들수 있다. 그리고 對中立國 浸透戰術로서는 ① 平和共存 標榜 ② 反帝·反植民主義 標榜 ③ 國際共產主義戰線 組織을 통한 浸透 ④ 人民外交方式에 의한 招請과 訪問을 통한 接近 ⑤ 經濟 및 文化交流를 통한 浸透 ⑥ 親善協會와 같은 團體를 통한 浸透 ⑦ 中立國에 影響력이 큰 國家를 통한 接近 ⑧ 中共勢를 便乘한 浸透등 매우 多樣하다. 이러한 浸透戰術은 그 浸透過程에 있어 時期마다 情勢變動과 對象國의 對內外政策에 따라 隨時로 變更된다.

(2) 對亞·阿·中南美關係

70年代에 와서 北韓은 對亞·阿·中南美外交에 拍車를 加하여 앞에서 본 外交關係樹立現況(表-3)에 나타난 것처럼 74年 5月 現在 亞洲에서 10 個國, (「스리랑카」包含), 阿洲에서 15 個國, 南美에서 4 個國 (「칠레」包含) 都合 29 個國과 大使級 外交關係를 樹立하였다. 이 가운데 「스리랑카」에서는 北韓 大使館員이 追放당함으로써 斷交狀態에 있고, 「칠레」와는 「칠레」의 「아옌데」左翼 政權을 顛覆시킨 軍事革命政權에 의해 外交關係가 斷絶되었다.

위의 修交國數가 뜻하는 바와 같이 특히 北韓의 對阿外交는 엄청난 收穫을 보여주고 있는데, 事實上 Africa 新生國들은 우선

같은 植民地 國家였고 被壓迫 民族이었다는데서 緣由하는 弱小國간 共同戰線이 어느 程度 必要할 뿐만 아니라 新植民 帝國主義에 대한 反撥感이 크게 作用함으로써 北韓의 對阿外交는 刮目할 進展을 보고 있는 셈이다. 또한 北韓은 Latin America 諸國이 民族主義 내지 經濟的 自覺에 눈을 뜨고 美國의 影響下에서 漸次 脫皮 하려는 努力이 增大되자 이를 奇貨로 接近을 적극 試圖하고 있다.

그동안 北韓이 注力해온 對中立圈外交의 效果面에서 特記할 것은 73年 9月 Africa의 「알제이」(「알제리」首都)에서 열린 非同盟會議에서 採択한 韓國問題決議案인데, Africa 36 個國, Arab 16 個國, Asia 15 個國, Latin America 6 個國과 「유고」, 「키프러스」, 「말타」등 76 個國이 參加한 이 非同盟國 頂上會議에서 採択한 韓國問題決議案은 『韓半島의 再統一이 平和的으로 實現될 수 있도록 外國의 干涉中止와 自決權을 要求한다』면서 韓國에서의 外軍撤収와 UN에서의 韓國問題 檢討 및 UNCURK의 解体를 主張하였을 뿐만 아니라 南北韓은 再統一 후에나 또는 南北聯邦國家라는 單一國家로서 UN에 加入될 수 있다고 하여 北韓의 立場을 同調, 支持했던 것이다. 실상 이들 非同盟國이 오늘날 第3 勢力으로서 차지하는 比重은 어떤 나라도 注視할 수 없는 狀況이고 보면,

北韓으로서는 韓半島 共產化統一遂行을 위한 支援勢力으로 利用함은
勿論 UN에서의 北韓 支持勢力, 確保를 위해서도 非同盟中立国外交
의 重要性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라 아나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 北韓의 對亞·阿·中南美 外交攻勢는 계속 加熱化될 것이
다.

第 3 章 結 論

國際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形成되고 있는 1970年代와 그 앞날을 展望, 이에 대처해서 對 亞細亞 아프리카外交에 있어서 功效를 거두기 위한 몇가지 方策으로서는, 첫째로 再來의 「平凡外交」를 止揚하고, 戰略적인 「集中外交」를 試圖해야 되겠다. 이는 어떤 地域이나 어떤 勢力圈에 있어서의 核心勢力이나 國家에 대한 集中外交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國家內에 있어서도 核心이 될 수 있는 政治勢力에 대한 集中外交를 말하는 것이다.

普遍主義原則에 의한 平凡한 外交는 制限된 國家資源을 고갈시키기에 알맞는, 두렵지 못한 알뜰한 外交關係維持에 급급하게 만들 뿐이며, 이는 外交力の 効率的인 구사 方策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같은 면목상의 外交關係 維持로서는 北韓이 集中的으로 外交力을 投入해 올 때, 우리는 그러한 地域에서 궁지에 몰리기 마련이다. 「10余個國과 外交關係를 우리가 維持하고 있음에서 國際舞臺에서 우리를 支持해 주는 國家들이 50個國未滿이고 보면 外交關係樹立의 目的이 무엇인가를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아랍圈의 例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여기엔 保守勢力系 아랍國家

들과 革新勢力系아랍國家들이 存在한다. 現在 關係로 보아 南韓은
올단王國, 사우디·아라비아王國등 保守勢力系아랍國家들과 密着되어
있는 반면에 北韓은, 알제리아, 이락, 시리아 등 革新勢力系아랍國家
들에 接近해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 조선 保守勢力系아랍國家들에게 集中外交를
展開, 相互關係를 공고히한 後에 서서히 革新勢力系아랍國家로 浸
透해가는 戰略을 利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南北時代」에 있어서의 對亞細亞·아프리카外交는 政治理
念과 홀슈타인原則을 초월한 과감성과 진취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政治理念의 鈍化現象이 더욱 顕著해져 가고 있는 1970年代의
外交가 政治理念에 구애를 받는다면 이는 實利外交를 外面하는 처
사가 될 것이다.

脫冷戰時代에 이르러 列強들은 現實主義外交를 展開하여, 새로운
勢力均衡體制를 모색하며, 특히 中共과 蘇聯은 兩國間의 紛爭에서
有利한 高地를 確保하기 위해 美國, 日本, 西獨 및 自由陣營勢力에
接近, 그네들의 힘을 利用하려는 이런 現實에, 對外政策決定이나 外
交的 基本方向設定에 있어서 政治理念이라는 要素가 絶對적인 價值
와 重要性을 지닐 수도 없으며, 이로 인해 外交活動에 制約을 받

을 수가 없는 것이다.

홀슈타인原則 역시 非現實的이며, 우리의 立場에서 볼때 非合理的인 原則이며 政策이다. 西獨처럼 国力을 背景으로 東方外交를 展開하고 있는 強大國도 이미 1960年에 이 홀슈타인原則을 사실상 포기했으며, 1969年 10月 29日에 당시 西獨外相 발디·셀氏는 『西獨의 新社民·自民聯立政府는 東獨을 승인하는 國家와는 外交關係를 단절한다는 홀슈타인原則을 폐기했다』고 公式的으로 聲明했다. 우리는 1960年代 초엽부터 中東 및 아프리카地域에서 이 홀슈타인原則의 適用如否가 問題되어 왔으며, 1969年의 外務部國政감사시에 도 큰 問題가 되었다.

外務부의 立場을 보면 北韓의 亞阿陞浸透저지를 위해 홀슈타인原則을 一律的으로 適用해오던 從來의 政策을 止揚, 상대방國家의 重要性에 따라 具體的으로 適用如否를 決定한다고 했다. 모리타니아와 브라자빌콩고에 北韓이 浸透하자 모리타니아는 1964年 12月에 브라자빌콩고와는 1965年 1月에 각각 國交를 斷切한바 있었다.

60年代에 있어서 北韓은 우리의 홀슈타인原則을 逆利用하여 韓國과 外交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中立國家들에 대한 浸透를 緊요하

게 기도하는 實情에 놓여 있었다. 亞細亞地域에서도 尼印, 버마, 印度等地에서 또 앞으로는 더 많은 地域에서 南北이 外交的인 競合相을 빚어낼 것이다. 美國의 케네디大統領은 外交關係가 惡化되면 될수록 더욱 그 地域에는 外交力을 投入, 活動의 發판을 公고히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그는 『活動할 수 없는 곳에서 무엇을 바랄 것인가』라고 主張하며, 美國과 南越政府와의 關係가 惡化되어 있던 1963年末에 美議회의 斷交論을 完강히 否定하였던 것이다.

앞으로의 우리의 對北韓政策은 從來의 「閉鎖孤立化」政策에서, 「開放牽制」政策으로 強化되어야 되겠고, 이에 따라 中立圈에 있어서의 南北競合關係에 있어서, 北韓을 實力競爭으로 壓倒하여 우리의 對外政策의 特殊目的 즉 優位勢力維持 내지 上昇을 達成해야 할 것이다.

세계로는 中立圈 外交에 있어서 實利外交의 強化를 서둘러야 하겠다. 從來의 政治的인 目的為主型에서 經濟的인 實利目的為主型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經濟的인 實質的인 유대강화는 기필코 政治的인 連帶性強化로 發展되기 때문이며 中立圈諸國들이야말로 開發途上國家들로서 實利를 追求하는 傾向이 짙은 것이다. 經濟的인 海外進出로서 우리에게 最適地帶가 바로 亞阿圈이라고 본다. 우리

는 이네들과의 經濟協力을 真正한 「파트너쉽」을 앞세워 共同利益을 圖謀한다는 根本적인 態度로서 交流를 促進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네째로는 中立國進出에 있어서 이네들의 旧宗主國들의 勢力을 아직까지도 無視못한다는 點에서 이들 英國이나 仏蘭西 등과의 協力이란 바탕위에서, 이 地域에 있어서의 우리立場 強化와 中立諸國과의 關係改稱을 꾀해야 되겠다. 즉 旧宗主國들의 亞阿諸國에 대한 影響力을 活用해 보자는 것이다. 美·蘇·中共勢力間의 三角逐戰이 치열해질 中間地帶이나 만큼, 이 三大國에 對한 不信이 助長될 展望이며, 이는 逆으로 中立國諸國들의 旧宗主國에 對한 再密着으로 發展될 展望이 짙기 때문이다.

共通적인 國家의 運命을 띠고 있는 故로 共通된 問題點들을 안고 있는 亞細亞·아프리카諸國들이며, 그의 一員인 韓國임에 우리는 中立國의 重要성과 價值觀을 再定立해서, 總力外交를 이 地帶에 投入해야 할 것이다.

